

A Study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Recogni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Seong-Bae Jeong*, Kyung-sin Kim**

Abstrac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le teachers' have higher expectations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compared to the female teachers'. Furthermore, the teachers who had experienced the free learning semester felt less job burdens than the teachers who did not. In addition, the subject teachers showed higher expectations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an the general teachers or the homeroom teachers.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stable system of free learning semester, it should be preceded by development of differentiated program of special education, free learning semester, strengthening of advance training, establishment of the system for participating in the whole school and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on.

▶ Keyword : Free Learning Semester, Special Education, Special School Teacher, Cognitive Survey, Job Burden, Burden, Specialized Training

I. Introduction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느끼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필요성, 기대효과, 직무부담, 지원방향에 대해 알아본 후 특수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라는 정책 안정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교육개혁을 시도하는 세계적 교육환경 동향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는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역량증진과 시민의식을 목표로 직업 체험을 강조하는 전환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1]. 잉글랜드의 경우 패키지여행, 자유여행, 학습, 일, 자원봉사, 레저 활동 등을 장려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2]. 호주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력을 강조하면서 학생 수업참여와 학생 핵심 역량함양을 강조하는 IBPP(Innovation and Best Practice Project)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3].

우리나라도 입시위주 암기식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와 행복지수가 낮고 장래희망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이러

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라는 교육정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의 교육 슬로건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4].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학기제를 2018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자유학기제는 지금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좌우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자유학기제 운영의 핵심은 체험중심의 학습과 진로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개발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색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직업체험은 개인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현장에서 직접 경험

• First Author: Seong-Bae Jeong, Corresponding Author: Kyung Shin Kim

*Seong-Bae Jeong (cellist915@Chosun.ac.k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Kyung Shin Kim (rapports@daum.net), School of Mok-po In-Sung Special School, Korea

• Received: 2017. 03. 23, Revised: 2017. 04. 11, Accepted: 2017. 04. 16.

하게 함으로써 미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 제공에 핵심을 두고 있다[5].

일반 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 배경은 입시 과열로 인해 학습본질적 의미를 잃고 많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재의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 교육부가 내린 방침이라면, 특수학교의 경우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애학생들이 스스로 자립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탐색할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일반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경쟁위주의 지필고사를 통한 평가를 지양하고 서술평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개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를 사용하기 전부터 개별화 교육에 근거한 서술형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수교육은 '2011 특수교육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면서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실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직업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학기제 필요성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어떤 정책이 수립되어 현장에 적용되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정책집행자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고, 자유학기제 정책의 집행자는 다름 아닌 교사이다. 이처럼 새로 도입된 교육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학습을 통해 정책을 실현시키는 특수학교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6, 7]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수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필요성, 기대효과, 직무부담, 지원방향과 같이 4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자유학기제라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초자료제공에 연구목적은 두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에 특수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교사들의 다양한 배경과 여러 변인에 따라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Theoretical Backgrounds

1. Legal Basis

자유학기제에 대한 법적근거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15.9.15.공포) 제44조 ③항 『중학교의 장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제48조의 2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이다. 제48조 2의 ①항 『중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항 『제1항에 따른 수업 및 체험활동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법에 따라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2015.12.01.고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8].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편성·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유학기 활동 운영,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 등(교육청 수준의 지원) 자료 개발·보급, 교원연수, 지역사회 연계 등 자유학기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Current Situation and Preliminary Study on the Free Semester System

2018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를 위해서, 2016. 3. ~ 2018. 2.(2년간, 14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신규로 2017.3. ~ 2019. 2.(2년간, 10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9]. 지난 2016. 11.25(금)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보고회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하였다. 공통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추어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함께 교육개혁 정책에 함께 동참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배경을 살펴보면 중학교 한 학기만이라도 시험의 부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과 새로운 수업방식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발견하기 위한 진로 탐색 활동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의 주요 교육목표 내용은 현재 특수교육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이 확인된다 하겠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해 봤던 학교의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고, 학생들도 자유학기제로 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학부모들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에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10]. 하지만,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자와 교사들이 80~90%정도 자유학기제에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학교나 교사 자신들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로 인식했던 결과라는 보고가 있어 주목된다[11].

어떤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공동체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정도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인식과 준비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사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12].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직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요구는 교사들의 심리적,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유발하여 교사들의 저항을 초래하거나 그 결과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보고하였는데, 이 역시 교사들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13]. 하지만, 뉴질랜드에

선 2002년부터 국가공인학업성취인증(NCEA)이라는 새로운 성취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교사의 직무부담이 늘어났으며 특히 교사들은 추가적인 문서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 이는 앞으로 시행될 자유학기제 역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배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덕(2013)은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단과과제 중 1순위로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라고 보고하면서[15] 추후 진행될 자유학기제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하겠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Subject

본 연구의 대상은 2016년 11월 25일(금)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한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운영보고회에 참석한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설문지를 2016년 11월 25일 하루에 교사들의 직접 작성하여 회수함에 넣도록 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Variable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n	41	32.8
	Woman	84	67.2
Free semester Conduct	Practice	21	16.8
	Scheduled	104	83.2
Training experience	O	63	50.4
	X	62	49.6
Local district	Special city	11	8.8
	Metropolitan city	35	28.0
	Other areas	79	63.2
Job Title	Administrator	1	0.8
	Manager teacher	50	40.0
	Homeroom teacher	62	49.6
	Subject teacher	12	9.6
personal history	Less than 5 years	24	19.2
	5 to 10 years	25	20.0
	10 to 15 years	26	20.8
	15 to 20 years	24	19.2
	Over 20 years	26	20.8
School division	Elementary School	23	18.4
	Middle school or higher	102	81.6
Totally		125	100.0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자유학기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제 교육현장의 교사들로 자유학기제를 계획하고 실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전체 참가교사는 128명이었으나,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된 3부를 제외하였으며, 연구 대상자 가운데 관리자(Administrator)는 1명이기 때문에 관리자도 제외하여 124

부만 통계처리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특수교사들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연구대상 중 남자가 41명(32.8%), 여자가 84명(67.2%)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 교사는 21명(16.8%), 실시예정인 학교 교사는 104명(83.2%)이며, 자유학기제 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는 63명(50.4%), 연수 경험이 없는 경우는 62명(49.6%)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시 거주 11명(8.8), 광역시 거주는 35명(28.0%), 그 외 지역은 79명(63.2%)로 나타났다. 직위를 보면 관리자 1명(0.8%), 부장교사 50명(40%), 담임교사 62명(49.6%), 교과교사는 12명(9.6%)이었다. 교육경력을 보면 5년 미만인 24명(19.2%), 5년 이상 10년 미만인 25명(20.0%),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24명(19.2%), 20년 이상은 26명(20.8%)이다. 담당학교 급이 초등학교인 경우 23명(18.4%)이고, 중학교 이상인 경우는 102명(81.6%)으로 나타났다.

2. Research Tools and Materials Processing

이 연구에서 특수교사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고자 설문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에 관한 문항은 선행논문[10, 16]을 분석하여 작성하였으며, 특수교사 3명의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최종 선택된 문항은 4가지 영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필요성 .891, 직무부담은 .815, 기대효과는 .941, 지원요구는 .852이며 전체적으로 .092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설문지의 문항 및 영역별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설문지의 채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처리했다.

각 문항을 변인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비교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ANOVA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Table 2. Research Tool Department

Contents		Count	Reliability
Necessity	free semester system	3	.891
	student participation		
	various experiential Activities		
Job burden	Administrative work	5	.815
	class-related work		
	Class work		
	Experience activities		
Benefit	Evaluation work	4	.941
	Aesthetic self-development		
	Cultivating humanity		
	School life satisfaction		
	Student career choices		
Support request	Related training	5	.852
	Provide information		
	Systematic work experience		
	Reduce teacher work		
Totally	Acquire teaching - learning materials	17	.902

IV. Result Analysis

1. Teacher Recognition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table 3>과 같다.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은 3.86(.92)점이며, 직무부담은 4.23(.63), 기대효과는 3.77(.91), 지원요구는 4.62(.57)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원요구가 가장 높으며 기대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eacher Recognition

Variable	Mean(M)	Standard Deviation(SD)
Necessity	3.86	.92
Job burden	4.23	.63
Benefit	3.77	.91
Support request	4.62	.48
Totality	4.12	.57

2. Teachers' Perception Level

2.1 Gender Difference

<table 4>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자유학기제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대효과($t=2.516, *p<.05$)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Gender difference

Variable	Man, M(SD)	Woman, M(SD)	t	p
Necessity	3.96(.81)	3.81(.97)	.873	.384
Job burden	4.22(.66)	4.24(.61)	.115	.909
Benefit	4.08(.65)	3.67(.96)	2.516	.013
Support request	4.60(.45)	4.62(.50)	.180	.857
Totality	4.19(.49)	4.08(.60)	1.026	.307

* $p<.05$

2.2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Free Semester System

<table 5>에 나타난 자유학기제 실시 여부에 따른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대효과에 '직무부담'($t=2.394, *p<.05$)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5.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Free Semester System

Variable	Practice, M(SD)	Scheduled, M(SD)	t	p
Necessity	3.98(.56)	3.83(.98)	.695	.488
Job burden	4.00(.69)	4.32(.61)	2.394	.018
Benefit	3.94(.68)	3.74(.95)	.928	.355
Support request	4.47(.46)	4.65(.48)	1.573	.118
Totality	4.10(.41)	4.12(.60)	.190	.850

* $p<.05$

2.3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Experience in Free Learning Semester Training

<table 6>에 나타난 자유학기제 연수경험에 따른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대효과에 '지원요구'($t=2.121, *p<.05$)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6.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Experience in Free Learning Semester Training

Variable	Elementary School, M(SD)	Middle school, M(SD)	t	p
Necessity	3.83(.93)	3.88(.93)	.308	.759
Job burden	4.49(.64)	4.28(.61)	.833	.406
Benefit	3.65(.93)	3.89(.88)	1.456	.148
Support request	4.53(.53)	4.71(.40)	2.121	.036
Totality	4.05(.56)	4.19(.57)	1.382	.170

* $p<.05$

2.4 Regional Perceptions

<table 7>에 나타난 지역에 따른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gional Perceptions

Variable	Special city, M(SD)	Metropolitan city, M(SD)	Other areas, M(SD)	t	p
Necessity	3.88(.48)	4.00(.82)	3.79(1.01)	.632	.533
Job burden	4.22(.45)	4.22(.57)	4.24(.68)	.013	.987
Benefit	3.80(.83)	3.65(.74)	3.82(.99)	.436	.648
Support request	4.56(.41)	4.58(.55)	4.64(.46)	.280	.756
Totality	4.11(.45)	4.11(.49)	4.12(.62)	.005	.995

* $p<.05$

2.5 Perception Difference by Position

<table 8>에 나타난 자유학기제 직위에 따른 인식을 분석한 결과 '기대효과'($t=3.446, *p<.05$) 변인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의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8. Perception Difference by Position

Variable	Manager teacher, M(SD)	Homeroom teacher, M(SD)	Subject teacher, M(SD)	t	p
Necessity	3.68(.93)	3.95(.92)	4.14(.83)	1.750	.178
Job burden	4.27(.549)	4.19(.69)	4.28(.62)	.336	.716
Benefit	3.52(.916)	3.90(.86)	4.13(.99)	3.446	.035
Support request	4.63(.42)	4.58(.55)	4.72(.31)	.485	.617
Totality	4.02(.50)	4.15(.61)	4.32(.57)	1.477	.232

* $p<.05$

2.6 Perception Difference by Educational Experience

<table 9>에 나타난 교육경력에 따른 인식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Perception Difference by Educational Experience

Variable	Less than 5 years, M (SD)	5 to 10 years, M (SD)	10 to 15 years, M (SD)	15 to 20 years, M (SD)	Over 20 years, M (SD)	t	p
Necessity	3.90 (.75)	3.75 (.69)	3.97 (.82)	4.08 (.85)	3.59 (1.33)	1.117	.352
Job burden	4.08 (.54)	4.17 (.65)	4.25 (.74)	4.33 (.61)	4.34 (.57)	.766	.549
Benefit	3.86 (.69)	3.78 (.81)	3.73 (.71)	4.08 (.88)	3.43 (1.27)	1.715	.151
Support request	4.65 (.36)	4.58 (.41)	4.65 (.49)	4.70 (.38)	4.51 (.68)	.591	.670
Totally	4.12 (.44)	4.07 (.40)	4.15 (.55)	4.30 (.56)	3.97 (.79)	1.130	.346

*p<.05

2.7 Differences in School-level Awareness

<table 10>에 나타난 담당 학교 급에 따른 인식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Differences in school-level awareness

Variable	Elementary School, M(SD)	Middle school, M(SD)	t	p
Necessity	4.07(1.10)	3.81(.88)	1.247	.215
Job burden	4.16(.67)	4.25(.62)	.653	.515
Benefit	3.90(1.06)	3.74(.88)	.757	.451
Support request	4.63(.66)	4.61(.43)	.111	.912
Totally	4.19(.70)	4.10(.54)	.651	.516

*p<.05

V. Argument and Suggestions

1. Argumen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18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본 후 자유학교제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의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일선현장에서 자유학기제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의 대부분이 직무부담과 지원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공인성취인증(NCEA : Nation Certificate of Education Achievement)', 방과 후 학교, 수석교사제,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 등 새로운 교육정책 도입으로 인해 교사들의 직무가 증가했다는 선행연구[13, 17]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기존에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직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수행의 요구는 교사들의 심리적, 정서적, 시간적 부담을 유발하여 교사들의 저항을 초래하거나 그 결과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13]. 특수학교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특수교사들에게 자유학기제가 꼭 필요한 정책이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교육적 성취를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교사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남교사와 여교사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유학기제에 대해 남교사들이 여교사들보다 훨씬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자유학기제가 가진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이 많다고 이야기되는 남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자유학기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남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유학기제를 연구학교로 실시한 경험이 있는 특수학교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보다 직무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기 전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보다 더 저항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전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자와 교사들이 80~90%정도 자유학기제에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학교나 교사 자신들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로 인식했던 연구결과[11]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사례를 수집·공유해야 하며, 집합연수 또는 온라인 연수를 통해서 특수교사들의 긍정적인 인식 공유와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연수경험이 있는 특수교사들보다 지원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요구를 살펴보면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 정보제공, 체계적인 직업 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교사 업무 경감, 관련된 교수-학습자료 및 시설 등의 확보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중증의 장애학생들이 많이 입학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반에 한명의 학생도 언어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특수학교의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요구를 가진 장애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서는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크레존(창의인성교육넷)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교원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특수

교육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자유학기제 성공사례와 장애영역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교육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크레존(창의 인성 교육넷)을 특수교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유학기제를 먼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반교육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여 특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지역, 교육경력, 담당학교급에 따라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직위에 따라서는 부장교사나 담임교사 보다 교과교사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를 전반적으로 기획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교사,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집행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교과 수업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교과교사 순으로 기대효과가 높다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이 현장에서 공동의 과제로 인식되기보다 부장과 담임교사들이 새로운 정책인 자유학기제를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몇몇 특수계층의 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부담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직교사나 비 보직 교사들의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교육정책에 비해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 교사들의 역량과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자유학기제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실시와 기본 인프라 갖추기, 학교·교사·학부모·학생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해와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13].

2. Suggestion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제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특수 교육과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다.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지도활동, 지필교사를 대신하는 서술평가가 자유학기제의 기본 골자라고 했을 때, 기존의 특수교육과의 차별화된 점을 찾는 것이 어렵다. 이에 특수교사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학교 중심으로 성공사례들을 통해 기존의 특수교육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프로그램화하여 개발 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성과들을 함께 공유하여 특수교사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둘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수 강화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원요구 중에 하나인 연수는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고 정착되는데 중요한 역할은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크레존(창의인성교육넷)에 대해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립특수교육원과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교 전체 참여 시스템 마련이다. 새로운 정책이 몇몇 교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

정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일부 교사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학교 전체가 참여하고 도울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행정의 간소화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각종 공문과 보고서양식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외부강사지원,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특정 연수에 참석한 특수교사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전수 조사를 통해 교사 전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보겠다.

REFERENCES

- [1] G. Jeffers. "The Role of School Leadership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 Year Programme in Ireland," *School Leadership & Management*, Vol. 30, No. 5, pp. 469-486, 2010.
- [2] A. Jones, "Review of gap year provision".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4.
- [3] DETYA, "School Innovation: Pathway to the Knowledge society," 2001.
- [4] Ministry of Education, *The Middle School Free Learning Semester Plan*, 2013.
- [5] N. R. Kim and J. W. Choi, "Direction and Challenges for Free Learning Semester through Foreign Cases Analysis based on Ireland, Denmark, Sweden, and United Kingdom,"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3, pp. 199-223. Oct. 2014.
- [6] M. Lipsky,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New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80.
- [7] B. Smit, "Teachers, local knowledge, and policy implementation: A qualitative policy-practice inquiry," *Education and Urban Society*, Vol. 37. No. 3, pp. 292-306, Mar. 2005.
- [8]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http://www.kice.re.kr/main.do?s=kice>
- [9]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and Support', 2016.
- [10] J. S. Kim, S. B. Moon, "Middle School Teacher's Perception on Free Learning Semeste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 Vol. 8, No. 1, pp.12-24, Mar. 2015.

- [11] H. J. Hong, Y. N. Lim, S. Y. Jang, "An Inquiry on the Loose Semester for Career Exploration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Survey of Stakeholder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 19, No. 2, pp. 33-68, Jun. 2013.
- [12] S. H. Choi, E. S. Kim, O. K. Kwon, O. H. Chang, K. T. Park, "A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Operation and Perceptions of Sciences Teachers and Students Regarding the 7th Elective-Centered Curriculum of High School Science Subjects,"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 52, No. 1, pp. 96-106, March. 2008.
- [13] H. S. Shin, S. H. Ka, K. H. Lee, "Integrative Approach and Policy Alternatives for Reducing Teachers's Workload,"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 28, No. 1. pp. 223-245, Mar. 2012.
- [14] L. Ingvarson, E. Kleinhenz, A. Beavis, H. Barwick, L. Carthy, J. Wilkinson, "Secondary teacher workload study report," *New Zealand ACER*. 2005.
- [15] S. D. Choi,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the Successful Free Learning Semest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Vol. 10, No. 1, pp. 1-115, Mar. 2013.
- [16] J. E. Lee, "A Study on Recognition Level of Teachers and Operation Characteristics on Free Semester System in Special School", *Kongju National University*, pp. 52-56, 2016.
- [17] J. Ko, "A Study on the Analysis of Strong Factors of the Management Master Teacher's and on the method of activat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Vol, 7, pp. 1-51, 2013.

Authors



Seong-Bae Jeong received his Ph.D. from the University of Daejeon in 2006. In 1998, he was a professor at Seong Hwa University. 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of administrative and welfare at Chosun University. The elderly, social welfare, and addiction rehabilitation are areas of interest.



Kyung-Shin Kim received the Ph.D degree in Special Education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08. She is a special teacher at Mok-po In-Sung Special School. Dr. Kim had worked as an adjunct professor D for 3 years at Sae Han University, Seoul, Korea in 2012-2014. She is currently an adjunc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reschool education at Mok-po Science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intellectual disability of transition education and life long education.